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이번주부터 수요일성경공부재개로 인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
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일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2024년 신년감사주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뜻대로 살
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4. 청소년주일예배

오늘부터 청소년주일예배가 오프라인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1시 20분까지 교회에 도착해 주시면 30분 정각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수요일성경공부

이번 주 수요일부터(1월 10일) 수요일성경공부가 오프라인에서 재개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모든 내용은 영상
으로 목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성경책과 노트를 꼭 지참해 주십시오.

6. 2023년도 현금정산신청

2023년도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현금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서경열 장로님께 문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실 때(영문이름/영문주소/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십
시오)

지난 주 (12/31)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47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2:36-4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14일	1월 21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9) 비방 받는 표징

본문 : 눅2:25-35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과, 또 하나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복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복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복의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간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에 욕심을 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의 양식을 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본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중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빛과 영광이 되라는 성공지향적인 찬양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비방 받는 표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반대로, 역설,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아들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비방 받는 표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복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의 눈을 떠서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